

농민운동의 새 지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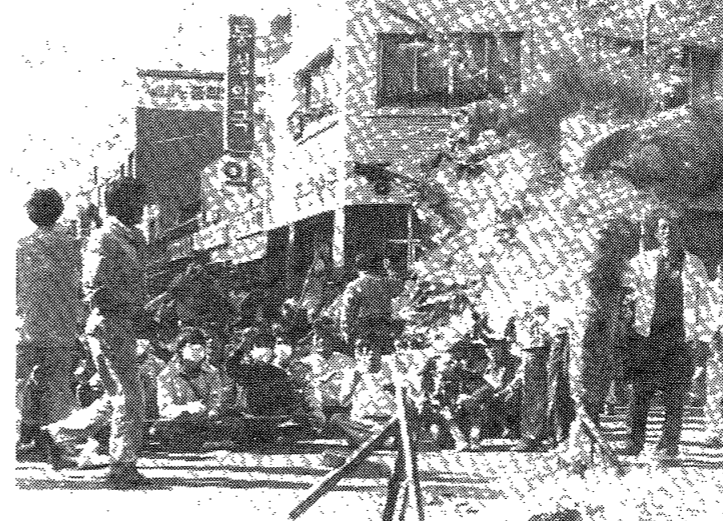
「농민운동의 새 지평」을 주제로 한 16일(수)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서울대 농학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농민운동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하여 농민운동의 이론적 배경, 농민운동의 실천적 과제, 농민운동의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회는 농민운동의 이론적 배경을 주제로 하여 농민운동의 이론적 배경, 농민운동의 실천적 과제, 농민운동의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해 토론했다.

저곡가정책, 정권의 반민중성 표출

지역별 농민운동의 정치 투쟁이론으로서

북한지역의 저곡가정책은 정권의 반민중성을 표출하고 있다. 지역별 농민운동의 정치 투쟁이론으로서의 저곡가정책은 농민들의 불만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 12일의 「농산물거래장기」에서 농민들이 「군사특례」와 「미제」의 화살표를 받는 장면.

농민 생존도 미국에게 달렸는가

기획취재

미국산 농산물 수입 개방이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의 농산물 수입 개방은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 개방이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의 농산물 수입 개방은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 개방이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의 농산물 수입 개방은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자주적 새 농민조직 통한 역량강화 계기돼야

농민들의 자주적 새 농민조직을 통한 역량강화 계기돼야 한다. 농민들의 자주적 새 농민조직을 통한 역량강화 계기돼야 한다.

정국 어디로 가고있다

정국 어디로 가고있다. 정국 어디로 가고있다. 정국 어디로 가고있다.

농민운동의 새 지평

농민운동의 새 지평. 농민운동의 새 지평. 농민운동의 새 지평.

농민운동의 새 지평

농민운동의 새 지평. 농민운동의 새 지평. 농민운동의 새 지평.

농민운동의 새 지평

농민운동의 새 지평. 농민운동의 새 지평. 농민운동의 새 지평.

농민운동의 새 지평

농민운동의 새 지평. 농민운동의 새 지평. 농민운동의 새 지평.

농민운동의 새 지평

농민운동의 새 지평. 농민운동의 새 지평. 농민운동의 새 지평.

농민운동의 새 지평

농민운동의 새 지평. 농민운동의 새 지평. 농민운동의 새 지평.

농민운동의 새 지평

농민운동의 새 지평. 농민운동의 새 지평. 농민운동의 새 지평.

농민운동의 새 지평

농민운동의 새 지평. 농민운동의 새 지평. 농민운동의 새 지평.

세계적 입체수송그룹 - 한진의 길

그 넓은 길로 당신을 모십니다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전 공 학 과	모집인원	응 시 자 격
사무직	상경,법정,어문학 및 기타 인문·사회계열	500~600명	1.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 1989년 2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기취득자 3. 병역필 또는 면제자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기술직	항공,기계,통신,전자,산업,건축,화학공과		
전산직	학과 제한 없음		

제 출 서 류

- 입사원서(당그룹 소정양식)..... 1부
- 입사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1988. 10. 10(월)~10. 21(금)
 - (평일 09:00~17:00, 토요일 09:00~15:00)
 - 교부처: 각 대학 및 접수처
 - 접수처: 서소문 KAL 빌딩 및 대한항공 부산-대구 광주지점

전형 방법

- 필기시험

모집부문	시험 과 목	일 시	장 소
사무직	영어, 상식	1988. 11. 6(일) 오전 10시	이화여고
기술직	영어, 전공		
전산직	영어, 적성검사		

기 타

- 국가보훈 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정은 시험 당일 안내함.
- 우원접수는 불가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서 접수처로 문의바람.
- (전화) 서울: 751-7965, 7966 / 부산: 463-1031 / 대구: 423-4237 / 광주: 232-7770

대한항공 ■ 한진 ■ 한일개발 ■ 한진해운 ■ 동양화재상보 ■ 정석기업 ■ 한일종합금융 ■ 한국공항 ■ 한국항공 ■ 한일증권 ■ 제동호산 ■ 한진관광 ■ 대한건설공사 ■ 대한종합운수 ■ 한국어학정보

『언어가 사회를 결정짓는다』는 말이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사회가 언어를 결정짓는다』는 말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해방이후 북한의 언어가 남한과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 부분은 주로 『어휘』에 관한 것이다.

즉 기본적인 문법구조는 큰 차이가 없으나 어근이 다르게 어휘(?)를 느끼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어휘감을 느끼게 된 원인을 우리는 꼼꼼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원인이 『분단』임을 부인할 수 없으리라. 한 동에서조차도 상호교류가 없으면 거리감과 어휘감을 느끼게 마련인데, 분단 44년이라는 세월이 민족 사이의 어휘감을 느끼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해방이후 풀었어 되풀이되어온 강자의 통일논의다. 정치적인 격발기만 되면 마치, 한반도 전체를 자신들만이 이끌고 갈 수 있다는 듯 어마어마한 구호를 내 걸고 『앞으로, 앞으로』를 외쳐왔던 1%도 안되는 극우 보수 반동 세력들의 행태 또한 남과 북의 언어의 어휘감을 초래하게 했던 책임을 면할수 없을 것이다.

언어란 구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인간집단의 생활적 추상이며 민족정신을 나타내는 거울이다. 그 거울이 반듯하지 못하고 울퉁불퉁하다면 필경 거울에 비치는 민족정신, 즉 언어도 울퉁불퉁한 수밖에 없다.

해방이후 남과 북은 모두 1933년에 조선어학회가 제정했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사용, 국한문 혼용체도를 유지해 왔으나, 북한에서는 19

사회가 언어를 결정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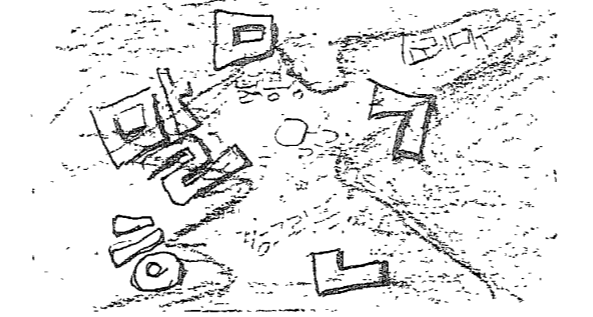
분단과 강자의 통일논의가 언어의 어휘감을 초래

49년 한자(漢字)를 우리의 고유어로 대체하는 대신 전편 폐지하였으나, 뒤이어 1954년 『조선어 학자법』을 출간하면서 『말다듬기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1967년에는 『조선말 규범집』의 발간과 동시에 평양발 중심의 『문화어 운동』을 전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글

어계집<, >을 사용하여 낱[시]내→낱시대, 깃발→기발 등으로 표기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말 다듬기 운동』의 주된 목적은 한자어(漢字語)와 일본어어의 탈피 및 근절이었으며, 뒤이어 영어를 포함한 외래어 근절을 목적으로 앞에서 밝힌대로 언어정화운동을 펼치게 된다(

상호대화·문화적교류·학문의 공동연구로 남북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 찾기에 주력해야 한다

자료를 종합해 24개에서 27개까지 늘었다. 이 운동은 1964년 1월 31일과 1966년 5월 14일 두 번에 걸쳐서 있었던 김일성과 언어학자들의 대담에서 태동되었다고 한다.



고 한다(이 작업의 완수성 여부는 지면관계로 밝힐 계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제 남북의 언어의 어휘감을 느끼게 하는 몇몇 예를 들어보자 남한에서는 현재 국한문 혼용체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적인 북한 어휘를 접하게 된다. 그 기

상징과 은유·압축으로 다듬어진 내용전달 돋보여 민족문화운동 맥락에서 「작은영화」 전환돼

우리문화의 어떤 영역보다도 영화는 취재와 고도의 눈높이를 겸여야 한다. 이는 현실에 이르러서도 크게 개선되지 못했으며 국가 영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적대감은 시선 또한 여전하다.

영화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내리는 중요한 원인은 국내 영화가 지금까지 진정한 문화로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했고 그 상황에 주조적으로 출몰되어 버리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 영화는 특히 미국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미국영화산업의 발달과정을 우리가 되풀이하고 있으며 서구영화의 개념을 아무 비판없이 그대로 수용 모방한 것이 현재 영화계의 침체를 가져오게 한 것이라 볼수있다.

주제 의식이 결여된 기성세대들의 주조적 틀을 깨고 영화의 새로운 면을 탐색하고자 하는 기운이 짙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실험영화라는 키워드 형성되어왔다.

실험영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영화를 실험적으로 조명하고 상징과 은유 또는 압축으로 다듬어진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비판적이고 능동적인 면을 살려 기성세대인들이

십이 되어 그들을 조직하고 실험영화에 대한 연구와 우수한 영화작가들이 합류해 이 비 생산하지 않으며 주로 각 학교를 돌면서 상영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실험영화라 할때는 위에서 언급된 개념이나 성격도 포함하지만 서구와 차이를 따라 민족운동, 문화운동으로 전개되어 갔다. 극장에서 상영되지 않는 즉 상업영화로는 부족함을 화를 실험영화라 불렀다. 그러다가 70년대말부터 영

오락성 배제한 현실비판정신 추구

대중영화의 반동으로 일어난 정신적 작업 민족성과 어우러진 예술성 창출해 내야

전했고 이것은 기성세대에 대한 반동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있다.

이러한 실험영화는 일반대중을 상대하기 보다는 그분야의 전문적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깨우침을 주고자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일

리었던 한옥씨는 요즘 방송작가·소설가·예술평론가·화가들을 규합해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밖에는 실험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사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외국을 보면 학생들이 중

그리 죽이기, 해수욕→바다를 마며, 진정제→기타앉힘, 엑센트→소리마루, 헬리오→웃음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언어정책은 끝머리를 씌는 문제이다. 우리가 남과 북의 어휘감을 말하기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제자리 찾기』이다.

즉, 『깨끗한 희망을 가진 민족의 통일성 찾기』가 바로 『제자리 찾기』가 아닐까? 그리고 그 해답은 『통일』인 것이다.

필러(Miller)라는 언어학자는 『말이 없으면 생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 말이라는 것이 통치자의 편리에 의해 변용되고 소멸하는 것이 될 경우에는 무얼 할 필요없이 『일관성 결여』라는 병을 앓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사는 것이 나으리라.

생성→발달→소멸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언어는 변해간다. 이 과정에서 단절(분단)이라는 하마의 이빨이 끼어들어 결과 남북의 언어가 어휘감과 어휘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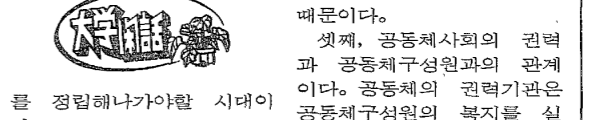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①상호대화 ②언어·문화적 교류 ③학문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북의 문제를 선연으로 놓고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 찾기』라는 목적의 확보 즉, 민족생활에 기반하는 삶의 결실을 개발하고 그것을 조직한다는 의미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전체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출발해야 한다.

개혁의 시대

지금 우리는 민주화 사회를 지향하는 시대에 있으며 변화와 혼돈 속에서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도전에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많은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의식이 없는 사람은 또한 이기적 개인이 될 수 없다. 사회의 변화는 법질서의 조화에서 비롯되는 사실이다. 법질서의 파괴는 즉 혼란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셋째, 공동체사회의 권력과 공동체구성원과의 관계이다. 공동체의 권력기관은 공동체구성원의 복지를 실현하는 데 그 최상의 목표를 삼아야한다. 즉 민주사회는 그 궁극의 목표가 복지국가의 건설에 있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달성하는 데는 이상의 세가지 요건을 이 기본조건으로 삼아야한다. 이는 간단하면서도 배우기는 쉬우나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만한 민중은 끊임없이 필요한 민주주의의 자각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족과 국가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 인간의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다음의 세가지 관계로 구분된다.

첫째, 공동체사회의 권력 기관과 공동체구성원과의 관계이다. 공동체의 권력기관은 공동체구성원의 복지를 실현하는 데 그 최상의 목표를 삼아야한다. 즉 민주사회는 그 궁극의 목표가 복지국가의 건설에 있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달성하는 데는 이상의 세가지 요건을 이 기본조건으로 삼아야한다. 이는 간단하면서도 배우기는 쉬우나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만한 민중은 끊임없이 필요한 민주주의의 자각이 필요하다.

작은고기만 걸리고 큰고기는 빠져나가는

『광주 2천여 애국 시민의 원혼이 살아 오고, 유사이래 최대의 민족수탈자인 제 5공화국 비리가 단 천하에 드러난 지금 우리는 자주 민주화 투쟁의 고요한 화살 원혼 비리 주범의 정화한 조사와 처벌로부터 일흔야 할 것이며, 역사와 민중의 냉엄함을 불러주어야 할 것이다』

지난 6일 서흥엔 산하 8개대 23명의 학생들이 5공 비리의 최절정 광주학살 진상규명등을 요구하며, 병호병원 사후실의 의원관 3층 4백6호를 점거하였다.

한편 지난 2일 제막식을 가진 분단올림픽에 일면 성공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많은 정치 쟁점들이 침착하고, 현재는 더욱 공고화된 느낌이다.

광주항쟁 문제 또한 올림픽의 화려한 수사에 덮여 어쩔 형편이 아니었다. 『2명 죽이면 살인마 2천명 죽이면 보통사람』이라한다지만 2천명의 죽음은 생명이 보물일 수는 없다. 따라서 서흥엔이 주장한 『광주학살 오적(전후한·노태우·위정·박정희·정호용)』에 대한 처벌은 내세우지 않는다면, 하나 국회의원이냐는 성명(?)은 이들에 대한 처벌조치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호도한다.

『참도독들은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면서도 권력을 가졌거나 해머도 없었기에 해머는 자를 들은 무사히 넘어간다면 이사회에서 정치는 사라지고...』(민원기운의 부도남게 드리는 글). 끝이 말이 아니더라도 작은 고기만 걸리고 큰고기는 빠져나가는 법이라는 말이 심상치는 계절이다.

이날 12시30분경 1천여명의 정경과 백골대에 의해 학생전원의 연행된 가운데 민원기운은 혼자 3층 난간 돌출에 매달려 풀까지 걸사할 정도의 자세를 보였다.

그가 위태위태한 흉통을 부여잡고도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현실자는 처단되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 그 의지를 뒷받침해주었기 때문이라 생각해 본다.

<정우서記者>

문화포럼

주안수씨 원작을 남민하씨가 연출, 각색했다.

금관의예수 공연

극단 로얄시어터의 『금관의 예수』가 오는 2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오후 4시, 7시 반에 엘강대예술극장에서 공연된다.

송지호의 오래 묵었던 작품을 로얄 시어터의 공동연출로 만든 작품으로 이극진 현대의 종교상을 재조명한다.

현해성 작품展

할복적인 자연미를 대리적 추상조각으로 표현하는 현해성씨의 작품이 9월 29일부터 10월 21일까지 21일부터 29일까지 열린다. 평면과 입체적, 국면과 조각형태의 대조적 감각을 잘 살리고 있다.

『빨강바다』 공연

극단대양은 외설과 예술에 대한 시비로 공연중지를 당했던 『매춘』 시리조종, 이병도씨의 『빨강바다』를 11월 14일까지 대양극장에서 열광공연한다.

『보통고릴라』 공연

신선극장에서는 지난 17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달간 성인극 『보통고릴라』를 공연

시흥예술극단

영상 졸업 사진전

경주캠퍼스 영상회에서는 졸업회원(주최) 19에서 21명까지 졸업회원 전시(3층)에서 졸업회원 7인의 순수 예술사진 작품 30점을 전시한다.

동국 연극회

경주 캠퍼스 동국연극회에서는 정기공연 및 제11회 대외 연극제 출품작인 『판인들의 축제』를 지난 11월 2일부터 5시, 12월 13일 오후 5시, 14일 2시에 각각 원효관 소극장에서 공연했다.

국문과 정기공연

국어국문학과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윤병조작 『잠재』를 학림관 소극장에서 공연했다.

인도철학과 M·T

인도철학과에서는 1·2학년의 단결된 결집력으로 M·T를 갖는다. 오는 22일, 23일

동학廣場

양일간 청령에서 개최한다.

佛大 체육대회

공용올림픽을 이루지 못한 대인의 한을 풀기 위한 불대체육대회가 오는 19일(일) 일산운동장에서 열린다. 각과별로 축구 등 운동경기를 가질 이번행사는 당일 오전 9시분 관중에서 버스를 전세, 출발할 예정이다.

흥사단 강좌

흥사단은 제118회 금오강좌를 오는 21일 오후 7시 흥사단강당에서 실시한다.

제9회 밀알의밤

제9회 신심장자복지자선단담의 밤 『밀알의밤』이 내달 8일 오후 7시 평동교회 고대 류관순기념관에서 한국밀알선교단 주최로 열린다.

민족통일 마당집 한물쌍기 운동

민족통일 마당집 한물쌍기 위원회(위원장 백기운)에서는 지난 8월 9일부터 30일까지 통일마당집에서 한물쌍기운동을 벌였다. 물론 한물에 오천원이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성금을 은행구좌를 통해 입금시키면 된다. (연락처는 종로구 신문로 1

민족문화학교

민족문화학교에서는 18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여의도 백인회관에서 민족문화학교 강좌를 개설한다. 『문화의 길』 『해시 연구』 『해금소설연구』 『빨간산 기록물』 『나의 문예에 대하여』 『민중문화와 노동현실』 『독문학의 현황과 독립민중』 『시작자도』 등을 주제로 신정(시인), 최원식(평론가), 황석영(작가) 씨들이 강의를 맡으며 마지막날인 12월 13일에는 『문화와 문학』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갖는다. 강좌신청장은 민족문화학교의 (313-1486)이며 수강료는 1만 2천 원이다.

제2기 청년학교 개설

청년학교(교장 김진권)에서는 민주화 운동정년회의 후반기로 오는 21일부터 12월 17일까지 25일간, 서촌시회회장을 강사로 강좌를 개설한다.

대일동문회

대일고 동문회에서는 오는 21일 오후 5시 불상앞에서 졸업생 환영회와 관련 예비모임을 갖는다. (회비는 3천 원)

대일동문회

대일고 동문회에서는 오는 21일 오후 5시 불상앞에서 졸업생 환영회와 관련 예비모임을 갖는다. (회비는 3천 원)

대일동문회

대일고 동문회에서는 오는 21일 오후 5시 불상앞에서 졸업생 환영회와 관련 예비모임을 갖는다. (회비는 3천 원)

세계 여성 해방 운동 초청 연설

『여성적임, 그 근원을 밝힌다』 어제(18일) 오후 2시 불상앞에서는 여성문제연구소 『생바람』 주최로 세계 여성해방운동가 초청 연설 대회가 개최되었다.

충무동문회

수성고 동문회에서는 오는 21일 오후 5시 30분 불상앞에서 예비모임을 갖는다.

광주고 동문회

광주고 동문회에서는 오는 21일 오후 5시 불상앞에서 졸업생 환영회와 관련 예비모임을 갖는다. (회비는 2천 원)

대일동문회

대일고 동문회에서는 오는 21일 오후 5시 불상앞에서 졸업생 환영회와 관련 예비모임을 갖는다. (회비는 3천 원)

충무동문회

충무고 동문회에서는 오는 21일 오후 5시 30분 불상앞에서 예비모임을 갖는다. (회비는 3천 원)

배명동문회

배명고 동문회에서는 오는 21일 오후 5시 불상앞에서 예비모임을 갖는다. (회비는 3천 원)

동래동문회

동래고 동문회에서는 오는 21일 오후 5시 학생회관에서 친목모임을 갖는다.

청주신흥동문회

청주 신흥고동문회에서는 오는 21일 오후 5시 30분 만해시비 앞에서 동문모임을 갖는다. (회비는 3천 원)

충무고 카니발

충무고 동문회에서는 오는 23일(일요일) 종전로벨 스텐드라(진양상가위)에서 중등인의 하나발을 위하여 카니발을 연다. (회비는 1만 2천 원)

김천 중앙동문회

경주캠퍼스 김천 중앙동문회에서는 오는 20일 A305에서 동문회를 갖는다. (회비는 5천 원)

포항 대동동문회

경주캠퍼스 포항 대동동문회에서는 오는 20일 오후 5시 A301에서 졸업생 환영회 동문모임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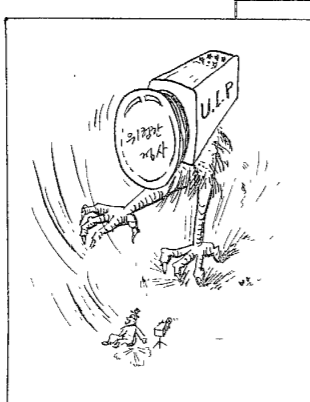


민족어 통일어 II 류청하 화

통일을 지향하는 사회의 움직임은 고조되고 통일 가능성과 전망을 판별하기 위해 다른 「민족어 통일어 II」는 1권 「오늘의 대한내일의 조국」에 이어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부제로 발간되었다. 양산기를 거치면서 새롭게 변신한 청년학생들의 주장과 실천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문예비평가> 278면·3권 5백원

한국사회와 관료적 권위주의의 한산진 화
유신 이후 우리사회의 지배적인 원리로 정착된 관료적 권위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한 「한국사회와 관료적 권위주의」가 나왔다. 권위주의의 원인과 전개양상 및 부작용에 대한 이론과 실천적인 관점에서 분석, 비판하고 우리사회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문화비평가> 408면·5천원

금상동 영가 송동호 화
보편적으로 접할 수 있는 서민들의 이야기 77편의 시에 담은 연작시집 「금상동 영가」가 미래문화사에서 나왔다. 「하얀동심」 「가난이 피울린 순정물」 「해방비탈」 등의 부제로 엮여져 강토의 애달픈 정서와 우직함속의 결집된 슬기와 애환을 투박한 토속어로 구성시켜 노래했다. <미래문화사> 168면·2천원



UIP 직배지지투쟁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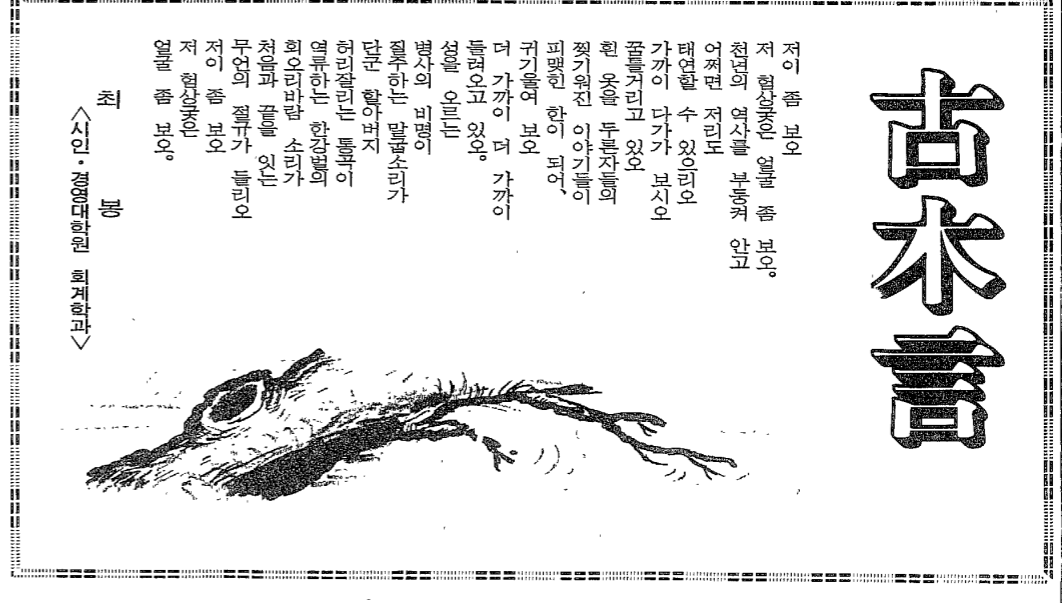
9월 24일 서울의 신영·코리아극장과 전국 7개 극장에서 미국 U.I.P사의 직배배급으로 「위험한 정사」를 상영하면서 「미국영화배지지 연합회」(이하 「영부위」)는 신영·코리아 극장에서 농성을 벌였으며 24일에는 코리아극의 28일엔 신영극의 영부위원들이 평화구역을 내세운 전경들에게 전원 연행 피기도 했으며 10월 4일엔 강릉극장 2층에 자리잡은 U.I.P 한국지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던 중 폭력을 휘두르는 전경들(일명 백골단)에게 강제 해산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영부위」의 조직적인 투쟁과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에도 불구하고 신영극장에서는 「위험한 정사」의 상영을 강행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국내 영화

시장의 지배 기도는 계속될 것이며 사실 싸움은 이제부터 새틀게 시작될 것이라 하였다. 직배를 통한 다국적 기업의 영화시장 개방압력은 문화적 침략을 노골화한, 미국의 검은 음모이며 영화 개정을 만들수 밖에 없었던 우리의 침묵적 매관 매료성을 규탄하며 미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족자주권의 확보를 위한 교두보로서 이번 투쟁을 벌가해야 할것이다. 이천의 미국의 침략성을 논하지 않더라도 최근의 미군들의 폭력성과 「허슬러」지의 성도착증, 메달리스트의 절도를 통한 비도덕성을, NBC방송의 백인우월주의에서 나타난 편파방송등 이런 일제도를 존속시켜 영화의 사회성과 대중에 대한 영향력 발달, 군사 문화의 논리를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현행 영화배급법은 철저한 정부의 감시와 규제에 영화 및 공연문화가 갖는 예술적 가치의 창조 및 시대정신의 표현을 억압당하고 대신 저급한 연예오락제공과 독재권력 홍보로 우민화정책에 앞장서게 되었다.

"직배지지 투쟁은 민족자주권 확보의 교두보로 평가돼"

거짓된 윤리를 직배를 통하여 한국에 이식시키고, 한국인의 건전한 민족정신까지 뺏아버리는 제국주의의 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비단 할리우드 거대 자본의 국내 유입으로 국내 영화계의 고사화 뿐만이 아니라 민족 자본의 유출을 통한 경제 식민지화까지 이르게 된다. 한편 「영부위」는 「직배지지」 못지않게 「영화진흥법」을 철폐하고 「영부위」는 85년에 개정된 현행 영화법이 미국의 영화시장 개방 압력에 따라 영화시장의 전면 개방으로 U.I.P사의 직배를 가능케 하였으며 국내 영화에 대하여 일제와 박정희 군사정권의 반민족적인 곁



古木言

시대를 살아가는 고뇌가 없는 이로 하여금 끈적끈적하게 달라오게 한다. 수신인은 주로 계층, 영수, 부모님들 가족들이며 자유를 향한 갈망 수인(四人)의 눈물겨운 투쟁이 명문장과 일치하여 평화의 메시지로 전해진다. 필자는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의 낮고 하지만 교도의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 쉽다」란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모로 누워 관장을 자아하는 젊은 잠자리는 열사람을 단지 37도의 열영어로보면 느끼게 합니다.」라고 솔직하면서 이 척박한 땅에서 키우는 모든 뜻이 절제기로 주저앉지 않기위한 깊은 성찰에 이르고 있다.

미술운동

작가와 미술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배계급의 미술을 지양하고 지역과 현장에서 실천적인 변혁운동에 투신하는 미술운동가들의 성과와 민족미술의 위상과 미술운동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미술운동 I」은 특히 근래들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시각매체운동에 대한 특집을 실어 주목되고 있다. 이미 각 운동단체에서 선전성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각 시각매체들을 판화, 소묘, 사

화제의 책

1968년 7월, 이른바 통령당사건으로 부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여년간을 징역생활을 한 신영복씨가 그간 가족에게 보낸 편지를 묶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했다.

형식은私信의 형태로 되어 있으나 필자의 깊은 사색과 분담

제3세계영화 민족의식확산에 기여

「제4회 80년대 화제작 감상회」를 보고

영국영화와 대학원 주최 「제4회 80년대 화제작 감상회」가 지난 주 동국대(L101)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감상회는 니카라과와 브라질에서 제작·상영된 두 편의 제3세계영화 대학생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국제사회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등장한 제3세계의 정치·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문화예술에서도 반미·반제의 투쟁적인 성격을 지닌 배후인자보다 우리의 근접한 위치에 놓여있다. 근래에 지구촌에서 범람하고 있는 외설·오락의 성격을 벗어난 진정한 민족·민중의식과 현대문명 문명비판 시각을 유도해 준다. 5편의 화제작은 「알시노와 콘도르」 「하이 바이 브라질」 「바다와 독아」 「그리고 배는 힘해한다」 「희생」이었고, 이중 첫 두 작품은 제3세계영화이다. 「알시노와 콘도르」는 니카라과 아 영화화를 비롯한 쿠바·코스타리카 영화협회의 제작으로 82년 만들어졌다. 79년 니카라과 아 민족해방전선을 배경으로 시작된 이 작품은 알시노라는 소년의 성장을 통해 모든 민중들의 해방을 향한 진로를 나타낸 것으로 다른 제3세계영화처럼 알파는 자들의 고통과 인식, 빈곤, 부패에 대한 분노를 그림으로써 현재 처해있는 우리의 상

황에 강한 어필을 해준다. 구성의 기교면에서는 근래에 자주 상영된 전쟁영화와 처럼 다크멘트 식 선을 많이 사용해 작위적인 미를 거부코자 했다. 서서스단을 소재로 브라질의 변화를 구체화시킨 작품 「하이 바이 브라질」은 일관되는 플롯형 태를 보이고 있다. 색소폰을 통해서 성본능과 작의관과관리를 비판하고, 매 컷마다 새로운 느낌

제3세계 영화에 대한 총체적 연구작업이 이뤄져야

과 강한 장면인식을 부각시키고 있다.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감독의 86년작인 「희생」은 86년 간느4개 부문 수상작의 대우로 주목받은 82년 만들어졌다. 79년 니카라과 아 민족해방전선을 배경으로 시작된 이 작품은 알시노라는 소년의 성장을 통해 모든 민중들의 해방을 향한 진로를 나타낸 것으로 다른 제3세계영화처럼 알파는 자들의 고통과 인식, 빈곤, 부패에 대한 분노를 그림으로써 현재 처해있는 우리의 상

社 員 募 集

“21世紀를 主導할 三養社 이제 그 未來를 이끌어갈 意慾的인 人材를 찾습니다”

募集部門	人員	應試資格
事務職	約100名 內外	1. 正規4年制大學畢業或 當學科專攻者로 89年 2 月 學1學位 取得者 또는 既取得者 2. 1961年 1月 1日 以後 出生者
技術職		1. 該部門 碩士學位 所持者 以上
研究職		1. 該部門 碩士學位 所持者 以上

5. 願書交付 및 接受
願書交付期間: 1988年 10月 15日(土)~10月 21日(金) 09:00~18:00
願書交付場所:
本 社 (743) 7711-20 釜山特別市 鍾路區 龜池洞 263
釜山事務所 (463) 3841-6 釜山直轄市 中區 中央洞 4街 85-8
大邱事務所 (753) 9901-8 大邱直轄市 東區 新川 3洞 89-1
大田事務所 (72) 4561-4 大田直轄市 東區 佳陵洞 1洞 288-3
光州事務所 (525) 9911-7 光州直轄市 北區 新安洞 5-3
馬山事務所 (93) 2661-5 馬山直轄市 楠洞 462-3
蔚山工場 (72) 7611-9 蔚山直轄市 南區 梅岩洞 360
全州工場 (72) 1234-42 全州直轄市 八福洞 2街 339
鮮-(仁川)工場 (867) 5071-81 仁川直轄市 西區 佳佐洞 285

6. 其 他
① 募集人員中에는 系列會社(鮮-포도糖株式會社 및 三南石油化學株式會社) 人材가 包含되어 있음.
② 國家 報勳對象者는 關係에 의거 優待함.
③ 郵便接受는 10月 21日(金) 18:00까지 到着分에 限함.
④ 其他 詳細한 事項은 當社 總務部 人事課로 問議바람.

株式會社 三養社
● 總務部門: 폴리메스SF, 폴리메스FLL, 絹粉糸
● 食品部門: 雪糖, 配合飼料, 水産物, 畜産, 豆糖, 果糖, 飴기루
● 化學, 機械部門: 이온交換樹脂, TPA, 인지아어링플라스틱, PET-BOTTLE, 産業機械

